

날짜: 5786 년, 11 월 24 일 (2026 년 2 월 11 일)

토라 문: Mishpatim (규례들)

주제: 절제를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권위력

마태복음 17 장 22~27 절은 흔히 물고기 입에서 발견된 동전이라는 기적으로 기억되지만, 이 구절의 진정한 핵심은 이를 둘러싼 토라의 공정법과 윤리적 논거에 있습니다. 예후다(유다) 법률적 통찰력에 기초하여 이 구절을 정독 할 때에,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적인 것을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권위의 정의를 정교하게 세우시는 지적 윤리적 가르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24 장과 열왕기하 12 장 1~17 절의 배경과 대조해 볼 때, 이 구절은 דין (딘 Din, 법/심판)에서 רַמְמִים (라카뎀;자비)을 거쳐 מַלְכוּת (말쿠트; 왕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הנהגה (토라; 가르침) 운영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공정의 심판->공홀->여호와 엘로힘의 왕국"의 질서입니다.

베드로에게 던져진 질문, 즉 예호슈아께서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토라에서 명시된 이스라엘 남자로서 지켜야 될 세금 납부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의 아들이 보내심 받았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연합하시어 하나되신 예호슈아께서는 육의 몸을 입으신 그의 생전에 성전 세금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내세우시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심으로써 명답을 주십니다. 예호슈아께서는 베드로에게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관세를 거두는지, 아니면 타인에게서 거두는지 물으십니다. 답은 확실합니다: 타인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이에 예호슈아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는 법적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딘("공정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토라 법 체계 안에서 준수하여야 될 의무는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권위 아래 있는 자는 지불하고, 권위의 권속해 속한 자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배상, 보상, 지불의 몫들이 각기 종, 주인, 재판관 등 그의 지위에 따라 할당되는 출애굽기 21~24 장의 민사법에 기반합니다. 권위자는 스스로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그 권위의 상속자는 피지배자로 세금법 아래 취급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입하면 이 논거는 정밀해집니다. 만약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아들은 법적으로 그 유지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은 타당합니다. 마태는 예호슈아께서 삶으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와의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토라 밖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토라의 내면에서 방산한 법적인 논리 안에서 온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토라의 딘-공정의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순전하게 그의 설명안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예호슈아 마쉬아흐의 설명은 토라의 법적 공정의 명확성을 밝혀 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며 즉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시겠다하십니다. 이 추가적인 행보는 라카뎀(여호와와의 13 가지 공홀의 속성)에서 발상합니다. 도덕적 측면에서 현인들이 깨달은

여호와와 토라는 공정법률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이 아니고 “라카밌(자비)이다!”라는 가르침의 토대가 바로 마태복음 17 장에서 기록한 예호슈아의 언행입니다. 현인들의 전통적 가르침의 원칙인 לפנים משורת הדין (리프님 미슈랄 하딘 Lifnim mishurat ha-din ; 엄격한 법조문의 테두리를 벗어 넘어서는 것 ; Beyond The Letter Of The Law)—의 가르침은, 여호와 살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정당하게 가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폐)하는 자, 곧 예호슈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호슈아께서 영원의 진리인 여호와 토라 법조문을 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에서 명시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권한이 있지만, 토라의 지식이 없어 망할 수 밖에 없는 땅끝에 흠어진 불순종의 이스라엘 네뻬쉬의 스파크들을 갱신 언약의 유업자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도록 피를 흘리시며, 그 스스로의 네뻬쉬(인생)을 다 내려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엡. 2:15)

여호와와 “자비”는 토라의 “공정의 법조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공정의 법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공정법이 부여하는 진정한 권위안에서 내려 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만이, 그 보유한 자유를 열심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권이 이 지불 행위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예호슈아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유 선택에 의해 성전세를 지불하십니다.

따라서 “성전세의 지불”은 강제적 순복이 아닌, 그가 스스로 내려놓고 낮은 곳을 선택하신 “초월적 권위”의 행실입니다. 여호와와 “라카밌의 속성”은 “딘의 속성”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부드럽게 상호보완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렇게 토라의 “공정의 법”과 충돌됨 없이 이스라엘 성회로써 평화적인 화합에 “자비의 속성”으로 동역하며 봉사하게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께로부터 피조물들의 통치 주권을 이임 받은 자가 그의 주장 할 수 있는 이익권을 내려놓으심으로 그의 “초월하는 영력-인지력-정신력-심리력-감성력-운동력-신체력”의 권위가 엘로힘의 מלכות (말쿠트 ; 왕국)라는 가장 낮은 곳인 이 땅 곧, 궁극적 물리적 세계이며 각각의 육신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입니다. (고전. 3:16)

성경에서의 왕권은 요구하는 능력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면의 심령(네뻬쉬-루아흐)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열왕기하 12 장은 냉혹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성전 자금은 법대로 징수되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세금 징수법 자체가 아니라, 징수의 책임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오용한 것에 있습니다. 곧, 이 시점에서는 “딘”이라는 공정의 측량은 존재했지만, 자비로 마무리 지어져야 될 말쿠트 (왕국)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비로 절제되지 않은 권위”만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승화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호슈아와 베드로를 위하여 한 세겔의 성전세는 지불되지만, 강제로 추출되거나 착취되지 않습니다. 그 금전은 여호와께 선택 받은 어느 한 생선의 입을 통해서 신성한 공급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세우시는 집은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내리시는 공급에 의해 세워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지불하심으로 여호와 성전의 법조문을 훼손하시지도, 또한 여호와 세우신 성전 위에 군림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여호와 아버지의 기록하신 뜻에 부합하는 권위— 곧 자유와, 절제와, 책임감이 질서 안에서 연합된 권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 17 장 22~27 절은 온전한 토라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십니다. 딘(공정법)은 왕의 아들이 그가 이을 왕궁에 내야 될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법적 진실을 세웁니다. 그러나, 라카뎨(금홍)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확증된 유업에서 빙산하는 권위력을 내려놓고 그 권위를 스스로 폐하며 (His intrinsically inherited Power; Not the Power Torah of Life)자신의 이익 넘어섭니다.

엘로힘 왕국은 토라의 외적인 법과 내적인 자비를 여호와 엘로힘 부으시는 살롬(평화)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토라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열왕기는 실패한 권위의관리자들의 위험을 폭로하며, 마태복음은 공정법과 자비와 왕권이 온전한 질서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의 권위가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토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토라의 가장 깊은 구조를 체현하는 구절들입니다. 권위는 단순히 특권으로 면제받는 데서 종결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한을 받은 자가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놓을때, 그 땅은 가장 높고 넓은 여호와 엘로힘 왕국의 임하며, 그 왕국의 신성한 권위는 그를 통하여 즉각 현현됩니다.

살롬.